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7호 [루계 제24795호] 주제 104 (2015)년 1월 17일 (토요일)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당의 경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사설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기 위한 애국투쟁에 온 민족이 떨쳐나서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희망찬 새해 2015년을 맞으며 하신 역사적인 신년사는 내외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전체 조선민족을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으로 힘있게 부르셨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는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반통일세력의 도전을 물리치고 북남관계의 획기적전환을 이룩하여 자주통일위업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한 필승의 기치이다.

작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절세위인의 탁월한 령도와 애국의지를 받들어 조국통일의 전향적구원을 기어이 열어놓고야말 확고한 투지와 일념에 넘쳐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비록 정세가 복잡하고 장애와 난관이 가로놓여있어도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필생의 념원이며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기어이 이룩하고 이 땅위에 존엄높고 부흥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워야 합니다.》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민족분열의 비극의 역사는 어느덧 70년을 기록하고있다.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단일민족이 세기를 이어가며 분열의 고통을 겪고있는것은 누구나 다 통분할 일이며 참을수 없는 민족적수난이 아닐수 없다. 우리는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앞을 가로막아도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반드시 이룩하고 강성번영의 새 민족사를 개척해야 한다.

뜻깊은 새해의 첫아침 우리 겨레는 조국해방 일흔흔을 맞은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갈 수 있게 하는 위대한 투쟁의 무기를 받아안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역사적인 신년사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에 관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뜻과 필생의 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강령적지침이다.

자주와 단합은 조국통일을 위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고귀한 유산을 받들고 있는 신조이고 의지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와 장군님들께서는 조국통일을 민

족지사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일관하게 자주적 원칙을 견지하시였으며 온 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 원칙과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장립방안은 자주적 원칙으로 일관되어있고 북과 남의 화합과 전민족의 대단결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단결의 정신을 구현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신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도 다름아닌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의 선언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조국통일구호와 과업들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혹과 고귀한 업적을 받들어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로 조국통일을 이룩하고 이 땅위에 존엄높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시라는 그이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가 깰수없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은 온 민족은 절세위인의 뜨거운 애국충정에 의해 조국통일을 위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거룩한 령도가 변함없이 이어지고있으며 바로 그것으로 하여 자주통일위업을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을 확신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역사적인 신년사는 조선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정세와 현 북남관계의 난국을 타개하고 자주통일의 획기적구원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정당한 지침이다.

지난해 조선반도에는 미국의 변함없는 대조선적대시정책과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당국의 반통일책동에 의해 국도의 긴장상태가 조성되고 북남관계도 최악의 파국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였다.

우리 공화국은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여러 중대제안들을 내놓고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 겨레의 한결같은 통일열망에 도전하여 남조선에 대규모적인 침략무력을 투입한 가운데 《미 리졸트》, 《독수리》, 《울지 프리덤 가디언》을 비롯 각종 북침합동군사연습들을 편이이 벌리고 국제무대에서 반공화국핵소송과 《인권》모략에 광분하면서 대화분위기를

파괴하고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격화시켰다. 남조선당국도 우리의 적극적인 북남관계개선노력을 《위장평화공세》, 《화전방면전술》로 모독하면서 외세와 야합하여 대규모의 핵전쟁연습과 반공화국베라살로, 체체대결소동에 매달렸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대화와 평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 호응해나온 대신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모처럼 마련된 긴장완화의 기회는 파괴되고 북남관계는 도리어 악화되었으며 조선반도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도를 침에한 긴장이 조성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신년사에서 조성된 엄중한 사태를 바로잡고 긴장완화와 평화, 북남관계개선을 추동해나가기 위한 과업을 뚜렷이 밝혀주시었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는 문제, 체제대결이 아니라 민족의 대단결, 대단결을 실현하는 문제,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으로 북남관계의 대진환, 대면력을 가져오는 문제 등 신년사에서 제시된 과업들은 조선반도의 현정세에 전적으로 부합되는것으로서 민족의 뜻과 힘을 합쳐 북남관계과국을 해소하고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게 하는 가장 올바른 지침이다. 특히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절세위인의 웅대한 구상과 대범하고 통이 큰 용단, 숭고한 애국애족의 의지가 뚜렷이 파시된것으로 하여 신년사는 내외의 열렬한 지지와 공명을 불러일으키며 온 민족에게 자주통일에 대한 크나큰 희망과 믿음을 안겨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역사적인 신년사는 온 민족이 힘을 합쳐 민족주체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활발있게 벌려나가기 위한 애국애족의 지침이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북과 남, 해외의 함께 조선민족이며 조국통일은 온 민족이 통일애국의 기치밑에 단결하여 힘찬 투쟁을 벌려나갈 때만이 이룩할수 있는 거족적위업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한몸바쳐나서는것은 민족성원들의 성스러운 임무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는 겨레의 통일열망과 의지를 전배로 북돋아주고 조

국통일운동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주고있다. 신년사는 조선민족이라면 누구나 조국해방 일흔흔이자 민족분열 70년이 되는 올해에 자신들이 지닌 민족적사명과 책임감을 뚜렷이 각각하게 하고 사상과 리념, 정견과 주의주장의 차이를 뛰어넘어 굳게 단합하여 자주통일위업을 힘있게 떠밀고나가게 해주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해주신 조국통일을 위한 구호와 과업들을 틀어쥐고 힘을 하나로 합쳐 올해에 조국통일운동의 일대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전민족적투쟁을 벌려야 한다.

《조국해방 일흔흔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총력하여 북남관계개선과 자주통일을 위한 애국위업을 힘차게 다그쳐나가는것이 올해 우리 민족앞에 나서고있는 투쟁과제이다.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려면 무엇보다도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적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남조선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합동군사연습은 대화상대방에 대한 로골적인 군사적대행위로서 북남관계를 악화시키고 긴장을 조성하며 민족의 머리에 핵전쟁의 위협을 몰아오는 주되는 화근이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제의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미군연합체제가 존재하는 한 합동군사연습을 계속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년초부터 각종 전쟁연습을 광범적으로 벌이고있다. 남조선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핵개발행위를 백방으로 강화하고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활발있게 벌려나가기 위한 애국애족의 지침이다.

남조선당국은 동족을 겨냥하여 외세와 함께 벌리는 위협천만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모든 전쟁책동을 중지하여야 한다.

신군정치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권수호의 믿음직한 보검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사회주의제도를 압살하려는 적대세력의 책동에 계속될수록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나갈것이며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도발자들에게 무자비한 징벌

을 가할것이다.
평화수호를 위한 투쟁의 주인은 우리 민족자신이다. 온 겨레가 조선반도의 평화를 파괴하며 핵전쟁위험을 조성하는 침략세력의 호전적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의 불길게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

북과 남은 조국통일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뛰어넘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여야 한다.
새해에 들어와서도 남조선에서는 동족을 악랄하게 핍박하는 도발적인 베라살포소동이 여전히 지속되고있으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주장하는 진보민주세력들을 《중복》으로 몰아 탄압하는 현대판 《마녀사냥》이 살벌하게 벌어지고있다. 이것은 남조선당국이 북남관계개선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는것을 립증해준다. 말로만 《대화》와 《실천행동》을 꿰치고 실제에서는 대결기조를 버리지 않으면 북남관계개선의 문은 언제 가도 열릴수 없다.

남조선에서 그 누구의 《변화》를 운운하며 불신과 갈등을 부추기는 체제대결, 《제도통일》에 매여달리지 말아야 하며 《인권》소통, 반공화국베라살포 등 상대방의 존엄높은 체제를 모독하면서 동족을 모해하는 외세와의 불순한 공조놀음을 그만 두어야 할것이다.

북과 남이 가야 할 길은 오직 하나 우리 민족끼리리념이 가리키는 길이며 조국통일운동에서 우리 민족이 들고나가야 할 기치도 우리 민족끼리이다. 조국통일을 민족의 의사와 요구, 북과 남의 리익에 맞게 이룩하는 비결도 우리 민족끼리리념을 구현하는데 있다.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에서 조건과 환경은 달라질수 있어도 자주와 단합의 근본원칙, 우리 민족끼리의 필항에서는 변화가 있을수 없다.

북과 남은 이미 합의한대로 조국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 원칙과 대단결의 필항에서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뛰어넘어 공동의 리익에 맞게 해결해야 한다.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것은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북과 남이 대결할것이 아니라 손을 맞잡고 통일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갈것을 바라고있다.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대결을 추구한다면 통일문제를 해결할수 없으며 어부지리를 얻은것은 외세뿐이라는것이 지난해 북남관계가 남기고있는 심각한 교훈이다. 지금이야말로 넓은 대결판면에서 벗어나 대담하게 정책전환을 함으로써 동족과 함께 북남관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기 할 때이다.

북과 남은 화해와 단합에 백해무익한 비방중상을 전면중지하고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하여 이끌어낸 민족적뉴대와 열매를 이어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에서의 대진환, 대면력을 가져올때 대한 우리의 호소에 긍정적으로 호응해나와야 하며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 민족이 뜻과 힘을 합치면 못해낼 일이 없다. 북과 남은 7.4 공동성명과 6.15 공동선언, 10.4선언을 채택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의지와 기개를 온 세상에 떨쳤다. 7.4 공동성명과 6.15 공동선언, 10.4선언은 가장 정당한 민족공동의 통일헌장, 통일대강이다. 북과 남이 현실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된 역사적인 성명, 선언들을 존중하고 성실히 리행해나간다면 북남관계에서의 대진환, 대면력을 얼마든지 가져올수 있다. 6.15 공동선언발표 15돐이 되는 올해에 우리 겨레가 사는 모든 곳에서 민족공동의 통일헌장, 통일대강을 지지호호하고 그 리행을 추동하기 위한 활동들을 다양하게 벌려야 한다.

비록 정세는 복잡하고 내외반통일세력의 책동에 악랄하여도 민족의 위대한 태양을 따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기어이 이룩하고야말려는 우리 겨레의 신념과 의지는 날로 억세어지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절세의 애국자이며 회세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국통일운동의 진두에 높이 모신 크나큰 영광과 긍지를 안고 거족적인 통일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반드시 열어나갈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에게 답전을 보내시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서거 3돐에 즈음하여 전문을 보내어온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에게 답전을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라울 까스프로 루스 쿠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이시며 쿠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인 쿠바

공화국 내각 수상, 바사르 알 아사드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노르돌 시하모니 캄보디아왕국 국왕, 곤락트 에베레 조나탄 나이제리아연방공화국 대통령, 무력총사령관, 베에르 은쿠룬지자 부룬디공화국 대통령, 조제프 까빌라 까방제 콩고민주주의공화국 대통령, 요웨리 카쿠타 무세베니 우간다공화국 대통령, 아브돌 파라프 알 씨 에리트리아공화국 대통령에게 답전을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답전들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서거 3돐에 즈음하여 뜨거운 정조의 마음이 담긴 전문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시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와 해당 나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었고 국가수반들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축원하시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7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파스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은령도자께서 새로 건설한 평양시버섯공장을 현지지도 하시며 조선로동당의 정책이 맞게 나라의 각 도, 시, 군들에 버섯생산기지를 건설할때 대해 지지하시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버섯생산기지를 일떠세우는것과 함께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는데 대하여 말씀하시었다.
그이께서는 현대적인 버섯생산기지를 꾸리는데 이바지한 건설자들과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건축종합대학, 평양기계대학의 과학자, 기술자

들에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감사사를 주시었다.
그이께서는 버섯공장의 본보기, 표준인 이 공장의 일꾼들, 종업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령도자께서는 뜻깊은 올해에 인민생활향상에서 전변을 가져오자고 호소하시었다.
일본의 교도통신도 같은 소

식을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싸하뉴스통신, 즈베즈다 TV 방송,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의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선군단 제1제대 보병사단 직속 구분대들의 비만중포사격경기대회를 지도하신 소식을 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기능성3겹온실박막생산 정상화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서

실용 대대적으로 건설하여 인민들의 식생활을 보다 풍성하게 하려는 위대한 구상을 펼쳐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굴지의 화학공업기지에 능력이 큰 기능성3겹온실박막생산공정을 일떠세우도록 온정에 하루빨리 익숙하고 풍부한 생산경험을 쌓기 위해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리며 여러가지 정황에 따르는 설비조작법에 정통하고 기술학습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짧은 기간에 새 공정의 믿음직한 주인으로 자라났다. 뿐만 아니라 설비관리를 짜고들어 만가동의 동음을 세차게 울리었다. 기술자들은 서로의 창조적

지혜를 합쳐 우리의 조건과 실정에 맞는 설비조작법을 새롭게 확립하여 기술세제를 부리던 외국기술자들의 코대를 뛰어넘었으며 생산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기술문제들을 자력으로 풀어나갔다. 최근에는 이리, 뿌리, 열매온실작물들의 수확고를 더욱 높일수 있는 선진기술성파를 받아들인 온실박막을 새로 개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련합기업소상위위원회의 지도 밑에 일꾼들은 실천적성공과당의 위대한 구상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가자고 로동자, 기술자들과 교추추동하면서 그들의 불길게 세차게 지펴올리



기관차의 실동률을 높이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정 주 기관차대에서-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당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조선청년운동의 앞길은 밝고 창창하다

위대한 태양기 휘날리며 전위대로 앞으로!

이 세상에 가장 존엄하고 긍지높은 사람은 청년들이었다. 청년들이 사회의 우환거리가 되고 기생충으로 전락되어 나라와 민족의 전도를 우려하며 많은 나라들이 비판과 절망에 빠져 미미한 암흑속을 방황하고 있는 오늘 위대한 태양의 축복속에 선군정치의 발걸음따라 자기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펼쳐서 혁명적 선진국을 건설해나가는 수백만 청년대군이 있다.

선군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약속해주는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올해에 백두산의 혁명정신과 기상으로 적대세력들의 도전과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려 조국해방과 당장건 일흔해를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여야 하겠습니다.»

젊은 힘으로도 솟구쳐 백두산 대국의 앞길을 떠메고나가는 크나큰 긍지를 안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선군조선청년의 존엄과 기상을 남김없이 펼쳐갈 빛나는 결의에 넘쳐있는 온 나라 청년들은 지금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창립 69돐을 뜻깊게 맞이하고 있다.

이날을 맞는 우리 청년들의 가슴마디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청년중시사상과 령도로 승

승장구하여온 조선청년운동의 자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빛내이며 그 어떤 천지풍파가 밀려온대도 오직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당을 따라 언제나 곧바로 나아가려는 비상한 의지와 언센 기상이 세차게 맥박치고있다.

백두의 넘과 기상을 안고 사회주의 내 조국의 존엄과 부강번영을 위한 총공격전적영웅으로 승리가 될때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고 각 정점으로 뚫어넘치는 총진군대오의 앞방에는 선군청년전위들이 서있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일군들과 청년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 높다. 신년사의 자자구구가 그대로 그들의 숨결이 되고 심장의 박동이 되어 울려나온다.

신년사학습도, 올해전투목표수립도 전투적이다!

신년사의 사상과 정신으로 단장된 그 그 파업관철을 위한 투쟁목표와 구체적인 작전도를 틀어린 청년동맹중앙위원회의 모든 일군들이 새해의 진군길에 나섰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가 내세운 올해전투목표는 정신이 번역됐다.

청년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리며 특히 5대교양사업에 큰 힘을 넣어 그들모두를 우리 당에 끌어들여 충실한 선군혁명투사로 튼튼히 준비시키는 사업, 백두산선군청

년발전조건실장과 북부철길개건 보수공사장을 비롯한 어렵고 힘든 전투장소, 과학전선과 함께 농업, 전력, 건설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대박약, 대혁신을 창조하고 청원들을 돌파하는 청년영웅, 청년인재로 준비시키기 위한 사업 등 올해의 총공격전적을 활사상처럼 폭발시키는 화신식정치사업을 드세차게 벌려 청년들이 창조적투쟁으로 마련한 자랑찬 선물을 안고 10월의 대추진장에 멋있게 들어서도록 하기 위한 전투조직도 빈틈없이 짜고들고있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 모든 일군들의 새해전투기세는 대단히 좋다.

오늘의 대고조전역에서 선군청년전위들의 위용을 남김없이 파시할 불타는 일념을 안고 날에 날마다 혁신과 위훈을 창조해가는 청년동맹일군들과 청년들의 투쟁으로 하여 과학기술부문과 농업, 전력, 석탄부문을 비롯한 사회주의경제각국, 문명국건설의 모든 전선이 부풀부풀 끓고있다.

위대한 선군정치의 발걸음따라 오늘의 총공격전의 선봉에서 용감하게, 적색하게 나아가자. 백두산선군청년발전조건실장과 북부철길개건보수공사장을 비롯한 중요대상공사장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펼쳐지자. 청년들의 이런 신념의 목소리가 강산을 진감하고있다.

그렇다. 청년들이 들끓어온 나라가

못한 중요대상전투장들마다에서 조선청년의 불굴의 기개를 남김없이 펼쳐나가도록 고무추동하는 선진선동사업의 도수를 높여나가고있다.

위원회는 모든 일군들이 선진 선, 선동원이 되어 전투장으로, 동맹원들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사상정신을 활사상처럼 폭발시키는 화신식정치사업을 드세차게 벌려 청년들이 창조적투쟁으로 마련한 자랑찬 선물을 안고 10월의 대추진장에 멋있게 들어서도록 하기 위한 전투조직도 빈틈없이 짜고들고있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 모든 일군들의 새해전투기세는 대단히 좋다.

오늘의 대고조전역에서 선군청년전위들의 위용을 남김없이 파시할 불타는 일념을 안고 날에 날마다 혁신과 위훈을 창조해가는 청년동맹일군들과 청년들의 투쟁으로 하여 과학기술부문과 농업, 전력, 석탄부문을 비롯한 사회주의경제각국, 문명국건설의 모든 전선이 부풀부풀 끓고있다.

위대한 선군정치의 발걸음따라 오늘의 총공격전의 선봉에서 용감하게, 적색하게 나아가자. 백두산선군청년발전조건실장과 북부철길개건보수공사장을 비롯한 중요대상공사장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펼쳐지자. 청년들의 이런 신념의 목소리가 강산을 진감하고있다.

그렇다. 청년들이 들끓어온 나라가

들끓고 최후승리가 더욱 앞당겨진다.

오늘의 대고조전역에서 청춘의 노래, 위훈의 노래를 더 높이 부르며 기세차게 내달릴 때 10월의 대추진장으로 향한 총진군대오의 발걸음이 더욱더 빨라진다는 것을 우리 청년들은 실천으로 증명할것이다.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싸워나가겠다는 백두의 정신력과 자기의것을 귀중히 여기고 더욱 빛내어나가겠다는 각자의 자존심으로 조국번영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총진군대오의 선구자, 전위투사가 되자!

이것이 오늘 선군청년전위들의 심상마디에서 뜨겁게 맥박치고있는 신념과 의지의 불같은 지향이다.

당의 믿음직한 최후대, 이속부대인 바로 이런 청년들의 대부대를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크나큰 자랑이다.

우리 인민은 10월의 대추진장에 활짝 총진군대오의 앞방에서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펼쳐져 보무당당히 나아가는 청년들의 활기왕성한 모습에서 더욱 감성연한 조국의 밝은 태양을 그려보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발걸음따라 언제나 곧바로, 오직 앞으로 최후승리를 향하여 보무당당히 나아가는 선군청년전위대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빛날것이다.

문 명 철

총공격전의 선봉대, 돌격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10월의 대추진장을 향한 총공격전의 앞방에 우리의 미더운 청년들이 서있다.

남북총연화합연합기업소의 청년동맹일군인 임영철동무는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터놓았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우리 청년들은 최고사령관동지의 새해전투명령으로 받아안았습니다. 우리는 뜻있는 올해에 애국총정의 불길, 창조와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비로소생산에서 새 기적을 창조하겠습니다. 그러하여 10월의 대추진장을 향한 올해의 총공격전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영예를 높이 펼쳐겠습니다.»

이것이 어찌 그의 심정만이라. 청춘의 지혜와 열정으로 최첨단과학기술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과학전선의 청년들,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를 비롯한 전력생산기지의 청년들, 화력탄광선동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청년단부들, 새해농사치러 봄을 앞당겨가는 협동농장의 청년들, 아나 온 나라 청년들의 심상마디에서 박동하는 신념과 의지의 불꽃이다.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선봉대, 돌격대가 되는것은 당과 인민의 품속에서 자라난 우리 청년들의 숭고한 의무이며 의리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청년들은 당을 따라 곧바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총진군대오의 최후대입니다.»

우리 청년들에 대한 당과 인민의 기대는 자못 크다. 우리 당은 청년들을 크게 믿고 백두산선군청년발전조건실장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을 통해 맡겨주었으며 청년들이 조국의 큰 짐을 맡아 해결것을 바라고있다.

당과 수령의 구상과 의도를 절대적으로 받들고 사생결단의 의지를 발휘하여 완강히 실천해나가는것은 우리 조선청년들의 고상한 사상정신적품위이며 고귀한 전통이다.

우리 청년들은 죽어도 혁명신념을 버리지 말

자는 고결한 인생관을 지니고 위대한 수평선을 따라 함일의 열전만리길을 뜻없이 헤쳐온 함일형명선열들처럼, 존엄한 전희의 나날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돌도 없는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서온 유망무명의 용사들처럼 그리고 전후 제대미수에서 사회주의락원을 일떠세우는 데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친 천리마기수들처럼 총공격전의 가장 힘든 초소마다에서 청춘의 열정과 지혜를 남김없이 바쳐 승리의 물결로 열어넘겨야 한다.

◇위훈이 없어야 어찌 청춘이라고 하랴. 총공격전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대오의 앞방에서 돌격구를 열어나가는 선봉대가 되어야 우리 청년들은 자기들을 로동당시대의 청춘이라고 멋있게 자부할수 있다.

사회주의경제각국, 문명국건설의 전투장들은 심장의 피가 펄펄 끓는 우리 청년들의 투쟁의 활무대이다.

청년들은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전투장마디에서 당의 사상관철, 당정책옹위전의 전진기를 최성취를 터쳐올리며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여야 한다.

우리 청년들은 높은 민족적자존심을 가지고 청춘의 열정과 재능, 우리의 자원으로 모든것을 우리 식으로 창조하고 발전시키는데서 기수가 되어야 한다.

청년들이 일하는 곳마다에서는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가 울려 퍼져야 하며 우리 조선민족의 고상한 도덕기풍과 아름다운 생활기풍이 짙 차던지게 하여야 한다.

청년동맹조직들은 모든 청년들이 사회주의경제각국과 문명국건설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영예를 높이 펼쳐도록 그들을 신천투쟁에서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단련시켜야 한다.

모든 청년들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격진장마디에서 애국총정의 불길, 창조와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지퍼올리는 선봉대, 돌격대의 영예를 남김없이 펼쳐서 10월의 대추진장에 자라난 선물을 안고 멋있게 들어서자.

루는 대명사인가. 오늘 우리 청년들의 지위와 위훈, 부된 삶이 그토록 존엄하고 빛나는것은 바로 대를 이어 누리는 수평복이 있기때문이다. 청년들에 대한 당과 인민, 나라와 민족의 존경과 영예, 미배가 비껴갔다. 그렇다. 우리 청년들에 대한 대명사를 그대로 이어놓으면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의 축복을 받으며 값없는 삶을 빛내어가는 선군조선의 청춘총가가 되는것이 아니겠는가.

본사기자 리 종 석

백두산은 우리 청년들의 혁명대학이다

우리 혁명의 억년부리를 간직하고 선군조선의 존엄과 기상을 온 세상에 펼쳐며 동방일각에 거연히 솟아 빛을 뿌리는 혁명의 정산 백두산.

조상 그 이름 불려만 보아도 백두산호방의 파용-하는 불로평소리가 메아리치고 실한봉이 휩쓰는 험한 산중에서 조국해방을 위해 피어린 항일대업을 벌인 선열들의 후대인 슬겉이 가슴에 마차와 더더욱 숭엄해지는 혁명의 산악 백두산.

바로 이 성스러운 땅에 혁명의 계승자들인 조선의 열혈청년들이 있다. 백두산에 삶의 뿌리를 내리고 백두의 물과 공기를 마시며 백두의 후손답게, 백두의 산악처럼 치솟는 혁명의 언덕 기둥들인 백두산선군청년 돌격대원들이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백두산과 같은 혁명의 성산을 가지고있는것은 조선의 자랑이며 조선인민의 더없는 긍지입니다.»

백두산의 새 세대 주인들의 미더운 모습을 대할 때마다 세상에 소리지르 자랑하고있는 총동을 금할수 없다.

세계를 둘러보라. 회파과 열정에 넘쳐 앞날을 설계하고 조국의 미래를 떠메고나가는 할 청춘들이건만 색이빠진 자본주의토양은 청년들을 과연 어떤 모양으로 만들고있는가.

극단한 개인리기주의, 퇴폐적인 생활풍조가 만연되어 조국대인민도 부모형제도 모르는 인간추물로 되고있는 그들에게는 삶의 보람과 영예도, 쾌락에 대한 아무런 리상과 꿈도 없었다.

우리 청년들의 숭고한 정신세계, 긍지높고 행복찬 삶과 얼마나 극적인 대조를 이루는가.

백두산선군청년발전조건실장에서 울려오는 청년돌격대원들의 심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라.

«백두산은 우리 청년들의 신념과 의지의 상징이다. 백두산에 삶의 좌표를 정하고 백두산에서 청춘을 빛내이는 우리 청년들처럼 존엄하고 부활은 청년들이 이 세상 그 어디에 있는가.»

«회를아치는 백두의 칼바람소리에서 우리는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는 혁명선열들의 강의를 듣는다. 백두산이야말로 우리 청년들을 백두산악처럼 억세게 키워주는 성스러운 혁명대학이다.»

«출다. 남들에게 없는것이 우리에게 있다. 신념의 기둥, 마음의 기둥인 백두산이 있고 혁명승리의 만년제보인 백두의 혁명정풍이 있다.

항일혁명선열들의 필승의 신념과 불굴의 기개가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원들의 가슴마다에 새겨 박동하고있기에 실한봉 휩쓰는 백두산자리에 그들은 시대의 기적, 조선의 기적을 창조해나가고있는 것이다.»

본사기자

어찌 이룰뿐이라.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온 나라 청년전위들의 대오가 백두산으로, 백두산으로 날고있고있다.

노름이 바다로 흐르는것이 자연의 리치라하면 이 땅의 청춘들이 대외적 혁명전투의 발원지, 백두산으로 뛰어넘는것은 우리 시대의 막을수 없는 흐름이 아니겠는가.

백두의 풍기리 마음을 씻고 백두의 칼바람으로 신념을 버리며 선군조선청년들의 답사대오를 백두산으로 끌어들여 오른다. 아나 이 나라 청년들은 어디에서나 백두산에 오른다.

일리는 달라도 우리 청년들의 삶의 좌표는 오직 하나, 언제나 백두산이다. 학습을 해도 빨개산선군청년들을 하고 일을 해도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위훈을 창조하는 이 나라의 청년들.

그렇다. 백두산은 조선청년들의 혁명대학이다.

백두산이 영원하듯이 조선청년들은 언제나 백두산에서 산다. 백두산은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신념의 강자, 의지의 강자들을 여세게 키운다.

백두산에 억센 뿌리를 내리고 백두의 넘과 기상으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계승자로 값있는 존엄과 영예를 펼쳐가는 선군조선청년들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우리 청년들처럼 당과 조국과 인민에게 충실하고 성실하며 순박하고 용감한 청년들은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얼마전 강서구역의 청년동맹사업을 취재하면서 나는 우리 시대 청년들의 존엄과 복된 삶에 대한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격정속에 받아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 질풍을 청산할때

단상 청춘의 대명사

실어내는 구역안의 청년들의 열정에 넘쳐 모습도 미더웠지만 그들속에서 터져나온 목소리들은 또 얼마나 인상깊었는가.

«우리 청년들이 사회주의 경제각국건설의 선봉대, 돌격대가 아닙니까.»

«우리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예비전투부대, 별동대가 아닙니까.»

선군조선청년의 존엄과 긍지가 한껏 넘쳐나는 그들의 목소리는 나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

각 지 당 조직들에서

지퍼올려 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결의목표를 어김없이 수행해나가고있다.

당조직에서는 위대성교양을 비롯한 5대교양을 강화하여 종업원들속에서 갱진물이 폭우로 인한 사태로 무너질 위험에 처하였을 때 서슴없이 뛰어들어 백두산철새위인들의 초상화를 일군것을 모셔내오는 수평결사옹위정신이 높이 발휘되게 하였다.

지평경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조직에서는 대중적기체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30여건의 기체혁신을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혁신기체를 비롯한 후방기지운용을 잘하여 탄부들의 식생활을 향상시켜 그들이 직관현실의 앞방에서 언제나 나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기게 하였다.

은과관행정사업소 당조직에서는 문화선진실을 비롯한 대중교양장소들에 위대성교양자료를 비롯한 수많은 교양자료를 만들어놓고 종업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종업원들을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헌신하는 열렬한 인간들로 준비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참신하게 벌려나가는 과정에 그들

세 폭의 붉은기 총진군대오에 나뭇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고 새해전진군에 나선 우리 인민의 드높은 기상인양 대고조전투장마디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세 폭의 붉은기가 세차게 나뭇긴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 별리터마다에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나뭇치고 창조와 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당조직들은 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나가는데 모를 박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실속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기치, 세 폭의 붉은기가 총진군대오에 더욱 힘차게 나뭇기도록 하여야 합니다.»

안락군 오국협동농장 기계화 작업반 당조직에서는 대중운동의 결의목표를 높이 세우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깊이 빛내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힘있게 추진하고 있다. 농중분회 부를 비롯한 최첨단수준의 연구과제들을 훌륭히 완성하여 10월의 대추진장에 멋있게 들어서실 드높은 열정에 넘쳐 낮과 밤을 불태우고있다.

본사기자

세 폭의 붉은기 총진군대오에 나뭇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고 새해전진군에 나선 우리 인민의 드높은 기상인양 대고조전투장마디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세 폭의 붉은기가 세차게 나뭇긴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 별리터마다에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나뭇치고 창조와 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당조직들은 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나가는데 모를 박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실속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기치, 세 폭의 붉은기가 총진군대오에 더욱 힘차게 나뭇기도록 하여야 합니다.»

안락군 오국협동농장 기계화 작업반 당조직에서는 대중운동의 결의목표를 높이 세우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깊이 빛내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힘있게 추진하고 있다. 농중분회 부를 비롯한 최첨단수준의 연구과제들을 훌륭히 완성하여 10월의 대추진장에 멋있게 들어서실 드높은 열정에 넘쳐 낮과 밤을 불태우고있다.

본사기자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창립 69돐경축 청년중앙 예술전대 공연 진행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창립 69돐경축 청년중앙예술전대 공연이 16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되었다.

설화와 혼성증창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가», «조선청년행진곡»으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남성4중창과 방랑 «공방식», 여성2중창 «청과 농민», 가부 «용광로», 남성5중창 «그 마을에 국어야 그 사랑 애국자야», 혼성2중창 «로동당을 잘 만드라 청춘이 빛나네»를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울렸다.

출연자들은 혁명영도의 전기간 청춘자, 청년사망의 정치를 일관하게 구현하여서 청년문제 해결의 세계적모범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격조있게 찬양하였다. 위대한 수평선들을 높이 모시고 주체적청년운동의 자랑스러운 개화기를 펼쳐온 지나온 년대들을 긍지높이 돌이켜보는 관람자들의 가슴가슴은 크나큰 격정으로 새치게 설레이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들으며는 심장마다에 비친이오 백두의 혁명정신과 기상으로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승리의 포성을 울리게 하여준 청년전위들의 드높은 기개가 경이와 «돌파하라 최첨단», 국어야가 «500만년의 신념» 등의 종목들에서 세차게 불분되었다.

김정일애국주의로 피를 끓이

며 휘황한 미래를 향해 폭풍쳐 내달리는 선군시대 청춘들의 열정과 기백이 약동하는 공연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청년대군을 가지고있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부풀어 느꼈다.

당을 따라 언제나 곧바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며 위대한 건설의 사명을 창조와 위훈으로 빛내여갈 청년전위들의 불타는 총창과 불굴의 기개를 감명깊게 보여준 공연은 소합창 불꽃의 고전적명작 «백두의 행진곡»이 이어가리라. «발걸음», «땀주머니 말자»로 끝났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봉해동지와 청년동맹일군들, 청년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세 폭의 붉은기 총진군대오에 나뭇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고 새해전진군에 나선 우리 인민의 드높은 기상인양 대고조전투장마디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세 폭의 붉은기가 세차게 나뭇긴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 별리터마다에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나뭇치고 창조와 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당조직들은 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나가는데 모를 박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실속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기치, 세 폭의 붉은기가 총진군대오에 더욱 힘차게 나뭇기도록 하여야 합니다.»

안락군 오국협동농장 기계화 작업반 당조직에서는 대중운동의 결의목표를 높이 세우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깊이 빛내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힘있게 추진하고 있다. 농중분회 부를 비롯한 최첨단수준의 연구과제들을 훌륭히 완성하여 10월의 대추진장에 멋있게 들어서실 드높은 열정에 넘쳐 낮과 밤을 불태우고있다.

본사기자

각 지 당 조직들에서

지퍼올려 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결의목표를 어김없이 수행해나가고있다.

당조직에서는 위대성교양을 비롯한 5대교양을 강화하여 종업원들속에서 갱진물이 폭우로 인한 사태로 무너질 위험에 처하였을 때 서슴없이 뛰어들어 백두산철새위인들의 초상화를 일군것을 모셔내오는 수평결사옹위정신이 높이 발휘되게 하였다.

지평경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조직에서는 대중적기체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30여건의 기체혁신을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혁신기체를 비롯한 후방기지운용을 잘하여 탄부들의 식생활을 향상시켜 그들이 직관현실의 앞방에서 언제나 나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기게 하였다.

은과관행정사업소 당조직에서는 문화선진실을 비롯한 대중교양장소들에 위대성교양자료를 비롯한 수많은 교양자료를 만들어놓고 종업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종업원들을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헌신하는 열렬한 인간들로 준비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참신하게 벌려나가는 과정에 그들

세 폭의 붉은기 총진군대오에 나뭇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고 새해전진군에 나선 우리 인민의 드높은 기상인양 대고조전투장마디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세 폭의 붉은기가 세차게 나뭇긴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 별리터마다에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나뭇치고 창조와 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당조직들은 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나가는데 모를 박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실속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기치, 세 폭의 붉은기가 총진군대오에 더욱 힘차게 나뭇기도록 하여야 합니다.»

안락군 오국협동농장 기계화 작업반 당조직에서는 대중운동의 결의목표를 높이 세우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깊이 빛내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힘있게 추진하고 있다. 농중분회 부를 비롯한 최첨단수준의 연구과제들을 훌륭히 완성하여 10월의 대추진장에 멋있게 들어서실 드높은 열정에 넘쳐 낮과 밤을 불태우고있다.

본사기자

세 폭의 붉은기 총진군대오에 나뭇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고 새해전진군에 나선 우리 인민의 드높은 기상인양 대고조전투장마디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세 폭의 붉은기가 세차게 나뭇긴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 별리터마다에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나뭇치고 창조와 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당조직들은 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나가는데 모를 박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실속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기치, 세 폭의 붉은기가 총진군대오에 더욱 힘차게 나뭇기도록 하여야 합니다.»

안락군 오국협동농장 기계화 작업반 당조직에서는 대중운동의 결의목표를 높이 세우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깊이 빛내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힘있게 추진하고 있다. 농중분회 부를 비롯한 최첨단수준의 연구과제들을 훌륭히 완성하여 10월의 대추진장에 멋있게 들어서실 드높은 열정에 넘쳐 낮과 밤을 불태우고있다.

본사기자

세 폭의 붉은기 총진군대오에 나뭇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고 새해전진군에 나선 우리 인민의 드높은 기상인양 대고조전투장마디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세 폭의 붉은기가 세차게 나뭇긴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 별리터마다에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나뭇치고 창조와 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당조직들은 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나가는데 모를 박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실속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기치, 세 폭의 붉은기가 총진군대오에 더욱 힘차게 나뭇기도록 하여야 합니다.»

안락군 오국협동농장 기계화 작업반 당조직에서는 대중운동의 결의목표를 높이 세우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깊이 빛내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힘있게 추진하고 있다. 농중분회 부를 비롯한 최첨단수준의 연구과제들을 훌륭히 완성하여 10월의 대추진장에 멋있게 들어서실 드높은 열정에 넘쳐 낮과 밤을 불태우고있다.

본사기자

최첨단돌파전의 앞방에서 기세높이 전진

우고조지 최첨단돌파전에서 선구자, 개천사, 과학연구부에서의 선봉적기수가 되도록 하기 위한 높은 목표를 내걸고 조직정치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들고있다.

과학연구부에서도 청년들이 앞방에서 달려나가야 한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이들은 경제계획과 인민생활향상에 결실히 필요한 문제들을 연구과제로 찾아내고 두뇌전, 기술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이곳 연구소의 청년과학자들은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온몸을 세계를 볼때 대한 의도를 가슴에 새기고 투쟁운동장정식풀에서 나서는 과학기술문제를 비롯한 최첨단수준의 연구과제들을 훌륭히 완성하여 10월의 대추진장에 멋있게 들어서실 드높은 열정에 넘쳐 낮과 밤을 불태우고있다.

본사기자

우고조지 최첨단돌파전에서 선구자, 개천사, 과학연구부에서의 선봉적기수가 되도록 하기 위한 높은 목표를 내걸고 조직정치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들고있다.

과학연구부에서도 청년들이 앞방에서 달려나가야 한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이들은 경제계획과 인민생활향상에 결실히 필요한 문제들을 연구과제로 찾아내고 두뇌전, 기술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이곳 연구소의 청년과학자들은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온몸을 세계를 볼때 대한 의도를 가슴에 새기고 투쟁운동장정식풀에서 나서는 과학기술문제를 비롯한 최첨단수준의 연구과제들을 훌륭히 완성하여 10월의 대추진장에 멋있게 들어서실 드높은 열정에 넘쳐 낮과 밤을 불태우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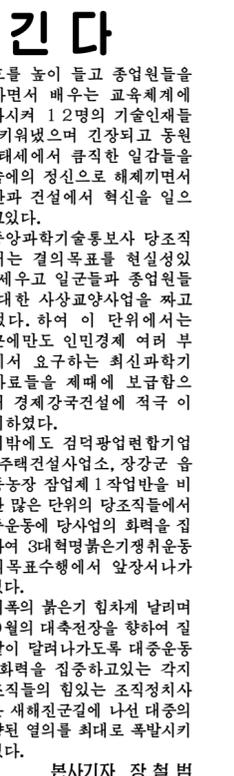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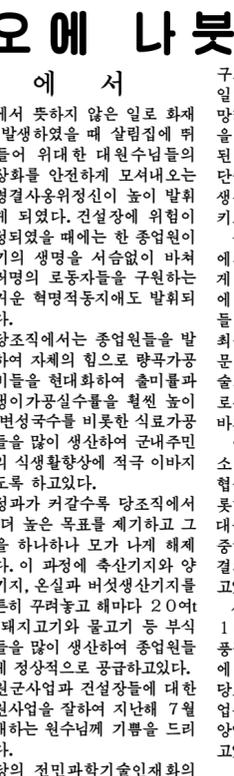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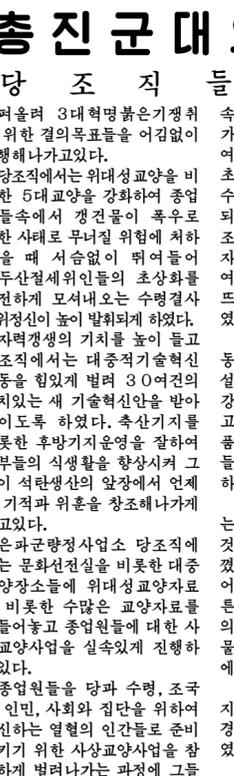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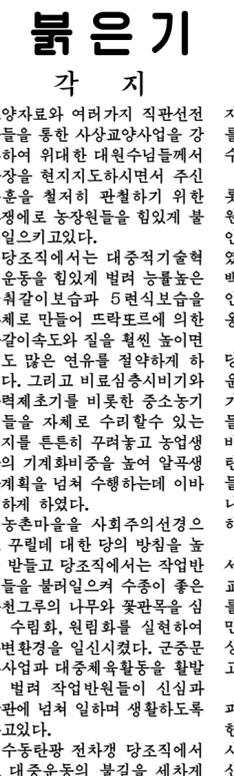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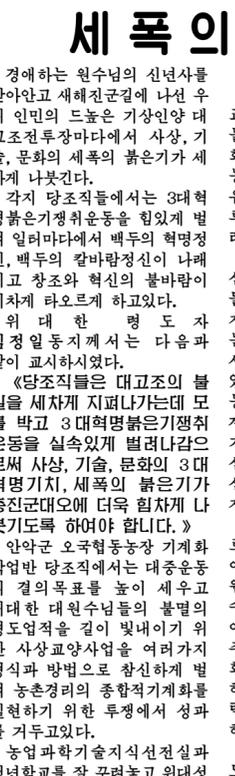
본사기자

우고조지 최첨단돌파전에서 선구자, 개천사, 과학연구부에서의 선봉적기수가 되도록 하기 위한 높은 목표를 내걸고 조직정치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들고있다.

과학연구부에서도 청년들이 앞방에서 달려나가야 한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이들은 경제계획과 인민생활향상에 결실히 필요한 문제들을 연구과제로 찾아내고 두뇌전, 기술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이곳 연구소의 청년과학자들은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온몸을 세계를 볼때 대한 의도를 가슴에 새기고 투쟁운동장정식풀에서 나서는 과학기술문제를 비롯한 최첨단수준의 연구과제들을 훌륭히 완성하여 10월의 대추진장에 멋있게 들어서실 드높은 열정에 넘쳐 낮과 밤을 불태우고있다.

본사기자



황금해의 《바다 만풍가》 온 나라를 뒤흔든다

조선인민군 제567군부대과하 18호수산사업소 예술소조공연을 보고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으로 천만군민을 불러일으킨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율해 신년사를 받아안고 온 나라가 부글부글 끓고있는 격동적인 시각에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는 조선인민군 제567군부대과하 18호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 그 가족들이 펼친 예술소조공연이 진행되었다. 지난해 물고기잡이전투에서 최고실적을 내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커다란 기쁨을 드리고 온 나라에 황금해력사상조의 선구자로 돌출하게 소문난 이곳 수산사업소 로동계급은 평양에서의 예술소조공연으로 다시 한번 만사람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중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넣어 예술선전대와 기동예술선전대 공연도 잘하고 예술소조활동도 더 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해 11월 조선인민군 제567군부대과하 18호수산사업소에서 진행된 물고기대풍을 기록하고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이 수산사업소를 찾으시어 예술소조원들의 공연까지 보자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정책교과파와도 같은 공연, 우리 로동계급의 문화를 대표할수 있는 공연이라고 하시면서 천길 바다속 진주에도 비길수 없는 소중한 마음을 간직하고있는 이런 로동계급이 있기에 우리 당이 강하고 언제나 승리하는 것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신 공연을 직접 보게 된 관람자들의 흥분은 대단했다.

황금해력사상조의 선구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로구나. 위대한 나라에 최선정지사업, 로동계급문화의 새로운 본보기로 솟아오른 당정책결사관철전투대의 예술의 면모는 과연 어떤것인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물론이고 문학예술 부문 창작자, 예술인들도 감탄을 금치 못해 하였다. 황금해력사상조의 선구자, 당정책결사관철전투대의 예술소조공파다운 참으로 훌륭하고 정신이 번쩍 드는 공연이었다.

이런 공연을 보면서 관람자들이 제일 큰 충격을 받은것은 황금해의 새 역사를 안아온 만선의 배고동소리가 어떻게 울려나오게 되었는가말이나 글로써가 아니라 심장오로 똑똑히 들리나 했었다.

18호수산사업소 로동계급의 공연은 당정책을 구호나 맹세로가 아니라 실천으로 결사관철한 인민군대 수산부문 로동계급의 고결하고 투철한 정신세계를 그대로 보여준 생활의 화폭, 투쟁의 화폭이었다.

무대가 아니라 격랑을 맞아야 내달리는 《단풍》의 갑박한 예술공원이라기보다는 당이 제시한 물고기잡이전투목표를 기어오르며 접경하기 위해 사생결단으로 떨쳐나선 로동당사원들과 종업원들의 위훈과 투쟁에 대한 생동한 전투기록이었다. 열정적으로 울려나오는 노래와 시, 악기소리들은 지난 력사의 어로전투장면들을 생동한 화폭으로 재현시켜주는 투쟁의 격렬한 음악이었다.

같은 어항조건에서 물고기잡이전투가 벌어졌고 수산사업소들의 행태도 크게 차이 없었다.

하지만 어찌하여 같은 바다, 같은 조건에서 인민군대 수산부문에서는 만선의 배고동소리를 그릴듯 승리의 북소리처럼 자랑스럽게 높이 울릴수 있었으며 《바다 만풍가》의 노래를 저렇듯 멋있게 부를수 있게 되었는가.

지난해 인민군대 수산부문에서 황금해의 새 역사를 창조하고 물고기대풍을 안아올수 있는 근비결, 당정책의 철저한 관철과 배배추의자사이의 아득한 사상정신적 높이의 차이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이 바로 18호수산사업소 예술소조공연에서 명백하게 나왔다고 말할수 있다.

당정책을 어떻게 접수하고 어떤 관점과 입장을 가지고 대하는가에 따라 당정책관철의 결과가 결정된다. 18호수산사업소 예술소조공연은 당정책결사관철투쟁의 전과정을 생동한 화폭으로 보여줌으로써 어떤 사람들이 황금해의 새 력사상조의 선구자가 될수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 울려나오는 《바다 만풍가》가 인민의 심금을 울릴수 있는가를 깨우쳐주는 당정책관철의 교과서와도 같은 공연이었다.

이것이 《역세계 이어가리 신념의 전통》을 당의 사상과 정책에 대한 로동계급의 자세와 입장문제를 진주 천리마대교조시 이곳 사업소 전세대로공들의 투쟁에 대한 추억을 통하여 실감하게 보여주었다. 종파분자들이 당정책관철을 공공연히 방해해나섰고 나라의 경제행진이 그러럼 어 려웠던 전후시기 수산부문의 어로공들이 과연 어떤 정신력으로 천리마대교를 일으켰는가.

《어디로 난관앞에 일시 겁을 먹고 다 낚은 그물을 가지고서는 만능어업을 할수 없다고, 우에다 제기해서 새 그물을 해질것이고 할때 준절하게 울리는 영웅지배인의 신념의 목소리...》

《어디 말 좀 해보오. 그대 동무아버지세대들이 전쟁때 조건이 좋구 어구자재가 넉넉해서 총포탄이 쏟아지는 속에서도 어로전투를 벌려 싸우는 전선용사들에게 물고기를 보내주었는가! 똑똑히 명심하시오. 오늘날의 물고기잡이전투는 단순한 생산실업적인 사업이 아니라 수평년의 사상과 로선을 지키는 신념의 전투란 말이오. 신념의 전투!》

전투의 나날에는 물고기를 많이 잡아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보내줄때 대한 위대한 수평년의 교시를 목숨바쳐 관철하였고 중산으로 당중앙을 결사옹위하기 위하여 사생결단의 각오로 낚바다를 휘어잡아 수산부문에서도 천리마가 나래쳐오르게 한 사람들이 다름이던 우리의 전세대로동계급이었다. 수산업을 발전시키는데 대한 당중앙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수많은 제대군인들과 청년들이 바다로 진출하고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녀성》호가 태어나던 천리마시대의 수산열풍은 정령 당중앙결사옹위의 충정의 신념이 낳은 기적이었다.

동무는 뼈를 갈아서라도 파고물을 재생하여 만능어업을 진행하던 천리마시대의 어로공들처럼 살고있는가. 천리마시대 정신으로 만선의 배고동소리를 높이 울릴데 대한 당의 수산정책을 결사관철하고있는가.

한편의 짧은 시이야기는 이 심각한 물음앞에, 전세대로동계급의 투쟁정신앞에 매 사람의 신념을 거울처럼 비추어주고있다. 18호수산사업소 예술소조공연은 이렇듯 황금해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 오늘날의 물고기잡이전투는 곧 당의 사상과 로선을 지키는 신념의 결사관철을 베풀고있고있다. 우리의 바다에는 물고기가 없다는 케배추의자사이 우는소리를 만선의 배고동소리로 짓눌러버리고 원수들의 무모한 전쟁연습소동의 화약냄을 사회주의바다향기, 물고기비린내로 쳐갈기며 백두의 눈보라폭풍과도 같은 수산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오는 새 세대 어로공들의 불같은 신념이 격랑처럼 흐르는 작품들을 보면서 관중은 당정책을 대하는 인민군대 수산부문 로동계급의 투철한 정신세계를 눈으로가 아니라 심장오로 읽었고 감정으로가 아니라 신념으로 새길수 있었다.

이것이 공포자중창 《나에게 가장 귀중한것은》은 평범한 수산사업소의 로동계급이 황금해력사상조의 주인공들로 될수 있는 근비결을 절절하게 깨우쳐주고있다. 이 작품에 출연하는 근로자들속에는 30여년간 수산전선을 지켜온 평범한 로동자이고 오랜 당세대로도 있었고 신동원도 있었고 지배도 있었다. 공연을 본 관람자들이 이 작품의 이야기와 노래를 들으며 관중은 당의 사랑과 믿음에 한복숨바쳐 보답할줄 아는 충정의 인간들이 다지는 맹세와 실천이 어떤것인가를 똑똑히 절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혁신자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돌려주시던 잊지 못할 그날의 감격을 다시금 생생히 되새겨주고 그 은정에 기어오르려는 전투와 동시에 예술소조활동은 전투적으로, 기동적으로 벌려나갔다. 만선의 배고동소리를 울려가게 《단풍》호를든 어기영차배진 나뉠지체 물고기그물을 끌어올리며 어로공들이 즐겨부르던 노래들과 바다에 직접 나가 어로작업을 지휘하면서 당일군들이 헤치던 구호들, 폭포처럼 쏟아지는 물고기들을 선별하기 위해 떨쳐나선 가족직원들이 신바람나게 넘기던 황겨는 목조들이 하나하나의 작품들을 구성하였다. 그 나날에 종업원들의 기쁨수준은 지도 모르게 높아졌으며 오늘날에는 전문가들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하는 민요가수, 독창수가 되어 아크레 강한 박자들로 흥취를 돋구어 주었다.

《노래면목 《바다》를 만났다. 《바다의 노래》, 《바다 만풍가》는 수산부문 로동계급이 특별히 사랑하는 명곡들로서 어로공들이 어로전투의 나날에 수백수천번 부른 노래들이다. 1960년대 당의 호소를 받들고 바다 초소로 탄원하였던 수많은 청년들이 즐겨부르던 《바다》를 만났다. 《바다의 노래》, 우리의 원수님께서 그리도 기쁘어 즐겨부르신 《바다 만풍가》의 노래를 출렁이든 파도마냥 자연스럽게 권결하여 우리 나라 수산업의 자랑스러운 발전력을 실감나게 보여주는 하나의 완결된 작품을 구성하였다. 하기에 청신하고 산뜻한 앞치마와 머리수건을 꼭게 두르고 선창에 출연자들의 모습에 따르는 갈매기처럼 세련되고 우아한 풍물을 배합하여 《바다의 노래》와 《바다 만풍가》노래를 부르는 녀성출연자들과 물고기가 가득 들어찬 그물을 연방 끌어올리며 구성된 노래가락을 뽑는 출연자들의 모습이 그토록 진실하고 생동하게 안겨올수 있었기이다.

이 어로전투의 나날에 수백수천번 부른 노래들이다. 1960년대 당의 호소를 받들고 바다 초소로 탄원하였던 수많은 청년들이 즐겨부르던 《바다》를 만났다. 《바다의 노래》, 우리의 원수님께서 그리도 기쁘어 즐겨부르신 《바다 만풍가》의 노래를 출렁이든 파도마냥 자연스럽게 권결하여 우리 나라 수산업의 자랑스러운 발전력을 실감나게 보여주는 하나의 완결된 작품을 구성하였다. 하기에 청신하고 산뜻한 앞치마와 머리수건을 꼭게 두르고 선창에 출연자들의 모습이 그토록 진실하고 생동하게 안겨올수 있었기이다.

특히 《바다 만풍가》의 노래는 이곳 수산사업소를 찾은 원수님께서 물고기대풍광경을 너무나 기쁘시어 몸소 이 명곡을 흥취나게 부르시던 그날의 잊을수 없는 화폭을 눈시울뜨겁게 들켜보게 하였다.

그런가 하면 설화와 함창 《인민의 환희》, 혼성5중창 《조국찬가》를 비롯한 중무대에서는 당과 조국을 진실한 함성으로 받드는 로동계급의 심장의 목소리를 감동깊이 울려주고 국창 《명사의 고향집에 가 뵈옵치네》에서는 병사인 아들의 편지를 받은 한 어로공가정의 이야기를 통하여 어떻게 되어 물고기잡이전투에 사업소의 가족들까지 모두 떨쳐나서게 되었으며 초소와 수산사업소가 어떤 혈연의 정으로 굳게 이어지게 되었는가를 생동한 화폭으로 펼쳐 보여주었다.

이곳 수산사업소 일군들은 당의 위력한 무기인 사상을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 종업원들과 가족들을 당정책의 신봉자, 관철자로 만들었으며 작품준비와 공연에 이르기까지 예술소조활동 전 과정이 곧 원시시 당의 사상으로 무장하고 그 위력이 발휘되는 과정으로 되게 하였다.

사람들이 알고싶어하는것, 듣고싶어하는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그것이 어찌 꼭 들어갈까 하며 원시시 당에서 내놓는 로선과 정책을 제 집안일처럼 환히 알수 있게 하는 예술, 해 종무마다에 우리 당의 사상과 의지가 힘있게 맥박치는 당정책화원 공연, 군중예술은 바로 이렇게 되어야 최선정지사업의 위력을 최대로 높이 발휘할수 있으며 예술소조공연이 그대로 사상적인 집중효과, 편속효과, 명중효과가 될수 있는것이다.

18호수산사업소 예술소조공연은 한 기업소의 작은 범위를 벗어나 선군시대 로동계급의 새 문화를 대표하고 사회주의명명공민들의 정취를 높여주는 위대한 시대의 전풍과 더불어 더 높이 솟아오른 우

리 로동계급문화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고있다. 관중은 이들의 공연을 보면서 혁명적근정정신을 체질화한 로동계급이 창조하는 새롭고 참신한 예술세계를 보게 되었으며 위대한 김정은시대 로동계급의 사상정신세계가 낳은 훌륭한 문명의 새 세계를 실감으로 느끼게 되었다.

《단풍》호를 군함으로, 만선기를 군기로, 만선의 배고동소리를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에서 울리는 승리의 포성으로, 물고기 한 마리한마리를 적진을 들부시는 별적의 포탄으로 여기고 싸운 인민군대 수산부문 로동계급의 투쟁본태와 일본놈을 훌륭한 예술적형상으로 재현한것으로 하여 공연은 오늘날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우리 시대 로동계급문화, 사회주의명명의 오늘날과 매일을 가슴벅차게 안아올게 하였다.

사회주의문화는 본질에 있어서 로동계급의 문화이다. 사회주의명명공민들을 힘있게 다그치는데서 로동계급이 창조하는 예술의 힘은 참으로 위력하다. 사상과 신념이 투철하고 당정책으로 단장약되었다며 혁명적실정능력이 비정상히 높은 로동계급의 정신세계가 반영된 예술은 언제나 시대를 들쭉개는 군중예술의 본보기가 되고 인민대중의 창조적투쟁과 전진운동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기마련이다.

18호수산사업소 예술소조공연은 오늘날 인민군대 수산부문 로동계급이 생산에서의 선구자뿐만아니라 가장 훌륭한 예술을 창조하며 사회주의명명공민들의 기수, 선군문화창조의 선구자로서 시대의 앞장서서 내달리고있다는것을 실연으로 증명하고있다.

《우해바다를 통해 또 보내서라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신 물고기잡이전투명령을 무조건 관철하려는 결사관철의 의지, 바다에는 밀물과 썰물이 따로 있어도 마음속엔 그리움의 밀물만이 가득차있는 인민군대 수산부문 로동계급의 불타는 소년의 세계를 목격하면서 사람들은 원수님에 대한 그리움은 당정책결사관철의 힘이며 위력한 추동력이라는것을 실생활을 통하여 감정적정서적으로 새겨안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결사관철하기 위한 투쟁으로 천만군민을 불러일으키는 최후승리의 진군가로 울려부르던 18호수산사업소 예술소조공연은 비록 막을 내렸지만 이들이 부른 《바다 만풍가》의 노래 소리는 온 나라에 거대한 메아리로 울려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주제 103 (2014)년 신년사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실천으로 관철하고 멋있게 승리자가 된 그들처럼 전진, 전군, 전진이 율해 신년사에서 제시된 과업을 목숨바쳐 관철할 각오를 안고 10월의 대추전장을 향하여 최후승리의 진군가를 높이 울리며 나아갈 때 보다 훌륭한 투쟁과 생활의 교향곡들이 어떻게 태어날것이며 우리의 매일은 《바다 만풍가》의 노래처럼 더더욱 풍요하고 아름다울것이다.

리 수 정



내 나라의 한그루 나무도 목숨처럼 귀중히 여기고 진정을 바쳐 가꾸자

기사 《100정보의 산림을 조성하고 가꾸어온 참된 애국자》에 대한 각계의 반향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장군님께서선 현시지도의 길에서 나무가 얼마 없는 산들을 보시면 못내 가슴아파하시면서 예로부터 우리 나라를 삼천리수강산이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조국의 산천을 로동당시대의 금수강산으로 훌륭히 꾸려 후대들에게 물려 주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지난해 12월 26일부 당보에 실린 기사 《100정보의 산림을 조성하고 가꾸어온 참된 애국자》는 지금 산림복구전투에 떨쳐나선 우리 산림부문의 전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큰 힘을 주는 정신적향식, 귀중한 교과서로 되고있다.

구분길동무는 산림부문의 일군도 산림감독원도 아니다. 조양소의 평범한 로동자인 그가 무엇때문에 벌거벗은 산을 두고

우리 시대의 진정한 애국자의 모습

그리고 가슴아파했고 스스로 허리를 굽이며 애국헌신의 길을 걸어왔는가.

지금도 구분길동무가 하던 말이 우리의 귀전에 메아리가 되어 들려오는것만 같다. 《아버지장군님께서 우리 도를 현지도하신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난 정말 바늘방석에 앉아있었잖소. 장군님께서 문득 우리 조양소를 찾아오시어 변변한 나무 한대 없는 이 산들을 보시고 가슴아파하실 것 같아서 말이오. 이 땅이 어떤 땅인데, 우리 장군님께서 사생결단으로 지켜주시는 땅이 아닌가. ...》

아직은 훗일이 짙은 산에 애 어린 나무모를 심어놓고 푸른 숲 우거질 땀 배일을 그려보며 그가 떠날때는 마음속진정에 우리

의 모습을 비추어준다. 우리 강원도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일 많이 찾으신 도들중의 하나이다. 병사들과 인민들을 찾아 위대한 장군님께서 도에 오실 때마다 우리는 장군님께서 또 오시겠다고 기뻐했으며 장군님마음속에 언제나 우리 도가 있다고 궁지도 가졌었다.

하지만 구분길동무처럼 바늘방석위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얹혀본적이 과연 몇번이나 있었는가. 살구나무우거진 마을을 보시면 환하게 웃으시며 살구나무동네라고 정겹게 불러주시던 장군님의 그 기쁨, 아름드리나무의 가지 하나가 잘린것을 보시고도 그토록 피로와하시던 장군님의 아픔을 누구보다 뼈에

강렬적인 가르치심과 율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헌신자들이 떨쳐나섰다.

조국은 어렵고 파업은 방대해 지지만 우리에게는 백두산위인들께서 보여주시신 위대한 모범이 있다.

조국의 고향조기, 나무 한그루도 가슴에 품어안고 자기의 몸을 피로 따듯이 덮어주는 감동일애국주의는 온 나라 산천을 황금산으로 전변시킬수 있는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이다.

나는 한계 도의 산림관리사업을 책임진 일군의 한 사람으로서 위대한 장군님의 신군형평등도의 거룩한 자옥이 그 어느곳보다 많이 새겨진 우리 도의 모든 산천을 푸른 숲 우거지게 하기 위하여 인생을 바치는 참된 애국자, 진짜애국자임을 되겠다. 강원도국도환경보존국관공무원 최창 강 일 수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우리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그들에게 끝없는 행복을 가져다주는 어머니당입니다.》

당보에 실린 기사 《100정보의 산림을 조성하고 가꾸어온 참된 애국자》를 처음 읽는 순간 나의 추억은 10여년간 그날로 달려갔다. 이 땅에 태를 붙은 사람이면 온당 할 일을 한 산림감독원을 시대의 영웅으로 높이 세세워준 고향은 우리 당, 그 품속에서 오늘날은 자라났다. 그 품속에서 오늘날은 자라났다. 하지만 그보다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것은 외진 산골 평범한 로동자의 소행도 일일이 찾아내어 세상에 보란듯이 영광의 단상에 내세워주는 우리 당의 사랑이다.

미날을 대면 들끓어오는 소리가 나는 척박한 평에도 나무모를 심고자 부시도록 지고 험한 산밭을 툄를 때 과연 그 무엇이 우리의 힘이 되었는가. 그것은 당에 대한 믿음이었다. 우리가 심는 나무에서 먼 후 날 행복의 열매를 따게 될 후대들은 우리의 이름을 물려다 어머니 우리 당만은 영원히 기억할것이라는 철성같은 믿음이 숲의 뿌리로 간직되어있었다.

그 믿음이 진리였음을 나의 가슴에 오늘날도 빛나는 영웅메아리가 말려여준다. 바로 구분길동무의 심장속에 도 그러한 믿음이 차있었기에 푸른 숲에 목목히 진정을 바쳐 온것 아닌가. 100정보의 울창한 숲에 깃든 구분길동무의 애국헌신의 자옥도 눈물겹다. 하지만 그보다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것은 외진 산골 평범한 로동자의 소행도 일일이 찾아내어 세상에 보란듯이 영광의 단상에 내세워주는 우리 당의 사랑이다.

보석은 땅속에 묻혀도 빛을 잃지 않는다지만 태양의 빛을 떠난 보석은 땅속에 있어도 막들에 불타버린다. 오직 땅을 밟고 애국의 진정을 바치는 이 나라의 천천지시대를 하나도 빼짐없이 따듯이 품어안는 위대한 어머니 조선로동당이

깨끗한 땅삼고 불같은 헌신으로 조국의 만년대계의 재부를 마련한 구분길동무야말로 이 땅을 심고자 안고 사는 애국자라고 말할수 있다.

지난 10여년간 우리 분초에서는 농장림을 잘 조성하여 농장림들의 맹감과 영농자재보장에 적극 기여하였다. 그래서 자부심도 있고 자랑도 하고싶었다. 하지만 누가 보진말것 뜨거

이 땅을 심장에 안고 살리

국자이기에 얼마 안되는 집채산으로 남았지 아니나 나무종자를 구해왔으며 사랑하는 인애와 자식에게 바칠 정까지도 장그러 버쳐 숲을 가꾸었는지 아니라. 조국에 제 집 울바지들감으로 비여온 나무 못습을 놓고 피로와하던 그의 모습이 눈앞에 보이는듯 하다. 흙먼지 날리던

산을 황금산으로 만들어놓고 마음사람들과 유적원이아들과까지 그 덕을 입히면서도 얼마간의 나무종자만을 받아두는 그런 고지식하고 깨끗한 땅삼았으며 머리가 숙여진다. 우리도 구분길동무처럼 조국이 입은 상처를 자기 심장에 새겨넣으며 피같은 눈물을 흘릴줄

아는 참된 애국자가 되었다. 조국에 대한 불같은 사랑과 리없이 맑고 깨끗한 땅삼으로 농장림을 더욱 푸르고 무성하게 가꾸어 위대한 대한수님들과 정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더욱 열심히 하고싶었다. 나는 한계 도의 산림관리사업을 책임진 일군의 한 사람으로서 위대한 장군님의 신군형평등도의 거룩한 자옥이 그 어느곳보다 많이 새겨진 우리 도의 모든 산천을 푸른 숲 우거지게 하기 위하여 인생을 바치는 참된 애국자, 진짜애국자임을 되겠다. 강원도국도환경보존국관공무원 최창 강 일 수

하루 한기를 예슬 심함처럼 귀했던 그 시절 자기 질러발에 낚알대신 10년, 20년을 내 나무씨앗을 뿌릴 때, 호

동당의 품을 떠나 어떻게 평범한 산림감독원, 로동자들이 영웅으로, 공로자로 자라날수 있었으랴.

위대한 땅이 있어 영웅도 있고 애국자도 있는것이다. 구분길동무의 모습에 자신의 어제를 비추어보는 이 시각 가슴속에 간직된 신념의 맹세가 더욱 굳어진다. 노래에도 뜻있어 천리길 끝난 곳에 내리갈이 또 있다. 당의 품속에서 받아안은 영광과 행복에 비해해 볼 해놓은 일이 너무도 적고 수많은 산들이 지금도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전후에 복구건설을 한것처럼 전진, 전군, 전진이 떨쳐나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하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애국의 호소를 받아안은 오늘날 바로 시대의 선구자, 기수가 되어 할 사람들이다. 다름아닌 우리 산림부문의 당원들이다. 나는 내 나라 강산에 푸른 숲 우거질 그날을 앞당기기 위한 승전으로 애국헌신의 한결에서 당이 안겨준 선군시대 영웅의 영예를 더욱 빛내어나가며 조국이 영원히 기억하는 애국자가 되었다는것을 굳게 결한다. 강동군산림감독원소 대리감독원소 산림감독원 로명영 리 중 찬

총공격전의 열풍을 더해 주는 의료봉사활동

인민적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빛내어갈 신심에 넘쳐

보건부문에서 시대의 전형인 립현단동무의 모범을 따라 배워 정성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속에 평양시안의 의료일군들이 새해벽두부터 헌정의료봉사활동을 전후적으로 진행하여 최후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선 대중의 열의를 고조시키고 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시안의 여러 단위의 의료일군들이 현장치료대지휘부문을 대고 조직적전투의 한복판에 전개해놓고 의료봉사활동을 시작한 때로부터 열흘 남짓한 짧은 기간에 수천명의 로동자들에게 대한 검진 및 치료를 보장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의료예방기관에서는 외래환자를 치료하는 기술력만을 강화하고 외래환자에 대한 치료사업을 잘하며 왕진과 현상치료, 검진과 만성환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의료봉사활동을 널리 벌여야 하겠습니디.》**

지난해 12월 31일

평양시안의 의료일군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 김만유병원의 일군들과 현장치료대원들은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와 김장숙평양방직공장, 동평양화력발전소들에 일제히 나가 창조부터 의료봉사활동을 참신하게 벌리기 위한 대책적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그에 기초하여 이들은 지난 1일부터 화석연료의 고질병, 그 기백으로 현상치료전투를 과감히 벌여 대고 조직적전투의 한복판에 전개해놓고 의료봉사활동을 시작한 때로부터 열흘 남짓한 짧은 기간에 수천명의 로동자들에게 대한 검진 및 치료를 보장하였다.

이들은 총공격전에 떨쳐나선 로동계급의 건강을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자각과 책임감을 안고 현장의료봉사활동을 성의있게 진행하는 것과 함께 질병치료를 해야 할 대상들을 병원의 여러 전문

과들에 파송하여 즉시 대책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고있다.

올해 설날 아침 평양약아원, 애육원을 돌아보시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높아야 나라가 밝아진다고 사담담이 이리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당보를 통해 눈물속에 접한 병원의 현장치료대원들은 이곳 연합기업소의 백수침명 로동자 자녀들에 대한 건강검진 및 치료도 진행하여 증산동력전에 떨쳐나선 생산자들의 열의를 한껏 북돋아주었다.

순환기내과와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등 여러 전문과파의사들로 이루어진 김만유병원의 현장치료대원들은 김장숙평양방직공장의 견방종합직장, 직포종합직장 등에 현장치료대를 전개하고 의료봉사활동을 전격적으로 벌려 지난 보름동안에만도 수많은 녀성로동자들에게 대한 검진 및 치료를 진행하였다.

이곳 현장치료대원들은 공장의 년간계획안수자들의 건강검진과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주유관동무는 한 로동자를

위해 보약제와 영양가들은 식품을 마련해주었으며 김길영, 리복순, 송준희동무들은 혁신자들의 가정까지 찾아 원, 애육원을 돌아보시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높아야 나라가 밝아진다고 사담담이 이리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당보를 통해 눈물속에 접한 병원의 현장치료대원들은 이곳 연합기업소의 백수침명 로동자 자녀들에 대한 건강검진 및 치료도 진행하여 증산동력전에 떨쳐나선 생산자들의 열의를 한껏 북돋아주었다.

평양화력발전소에 달려 나간 김만유병원의 김희희, 김해관동무를 비롯한 현장치료대원들은 현상치료대의 기본동력인 전력생산을 위해 분조를 다루며 전투를 벌이고있는 이곳 생산자들의 건강증진을 자신들이 책임졌다는 불같은 사명감을 안고 모든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고 있다.

평양시안의 현장치료대원들도 지칠 줄 모르는 정력을 안고 김장숙평양방직공장의 여러 직장들을 찾아다니며 매일 수백명의 녀성로동자들에게 대한 질병검진 및 치료를 보장하였다.

김준란, 리현숙동무를 비롯한 현장치료대원들은 평양시안 여러 단위의 로동자들에게 대한 검진 및 치료를 진행하였다. 이 곳 현장치료대원들은 공장의 년간계획안수자들의 건강검진과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주유관동무는 한 로동자를

덕성군 삼기협동농장에서

이 하천을 리용하여 계간식밭전소들을 건설해놓고 전기를 크게 보고있다.

농장에서는 물이 흐르는 모든 곳에 중소형발전소를 건설할 때에 대한 당정책을 높이 받들고 여러개의 저력차발전소들을 건설하여 농산작업반들과 보수분조, 학교에서 전기를 리용할 수 있게 해놓았다.

생산된 전기는 사시절 조영보장과 텔레비전시청은 물론 기계화작업반과 보수분조에서 용접작업과 같은 농기계수리에 적기 리용하고있다. 지난해와 같이 왕가물이 든 조건에서도 농장에서는 발전소의 전기로 논과 밭에 물을 대고 가을에는 탈곡도 성과격으로 보장하였다.

이제 로운것은 탈곡할 때에는 발전기를 세우고 수차로 직접 탈곡기구를 돌려 날릴것을 하는 것이다. 농산제 1작업반에서부터 농산제 5작업반에 이르기까지 작업반들의 탈곡장들에 건설해놓은 자체발전소의 전기로 밭에는 날릴것을 하고 밤에는 전기불을 당고 텔레비전도 시청하니 얼마나 좋은가. 직중천을 따라 1호, 2호발전소, 통팔명천에는 3호, 4호, 5호, 6호발전소... 전기기 광생산되고 농산, 파수, 축산에 다같이 발전시키니 나날이 살림은 꽃피어가고 있다. 농장에서는 사기구체배 방법도 적극 받아들여 그 덕을 보고있다. 감자와 강냉이, 고추와 무우 등 여러 작물들에 대한 사기구체

산물농장의 특성을 잘 살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업부문에서는 자연기후조건과 지대적특성에 맞게 농작물을 심으며 농촌경리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덕성군 삼기협동농장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빛나고있는 단위의이다. **주제 52(1963)년 8월 5일** 농장을 찾아 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삼기리 감자밭을 보시고 감자밭이 참 살기 좋은 곳이라고, 강냉이와 고추농사도 잘하였다고 하시면서 파수원을 더 조성하고 고추를 많이 심는 것과 함께 길옆의 빈땅에는 출당콩도 심어 산물의 특성에 맞게 농촌경리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는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농장을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사업을 힘써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농장주변으로는 통팔명천과 직중천이 흐르고있다. 김재덕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농장원

1월생산계획을 단숨에

각지 의약품, 의료기구공장들에서

고 평양제약공장의 종업원들은 새해벽두부터 생산적양양을 일으키고있다. 평양제약공장을 비롯한 여러 예방약공장에서 당의 예방의학적방정관찰에서 자신들이 맡고있는 업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내부에 비와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늘리기 위한 긴장한 전투를 벌여가고있다.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사업은 자신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높은 자각을 안고 보건성 일군들은 만경대고려약공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 고려약생산에 필요한 많은 물자들을 싣고 달려나가 질 좋고 효능높은 고려약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구체적인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년초부터 더 높은 생산성과를 얻어내기 위해 앞장에서 뛰고 또 뛰는 일군들의 진취적인 사업기풍에 고무된 각지 고려약공장 로동계급이

1월생산계획을 단숨에

각지 의약품, 의료기구공장들에서

신념에 바짝 조이고 긴장한 전투를 벌여가고있다. 총공격전의 불길도 높이 강개고려약공장, 강개고려약가공공장, 금야고려약공장에서 열을 남긴 시간엔 월계획의 50%이상 수행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비약의 불바람은 의료기구 부문에서도 세차게 일어나고 있다. 보건성의 해당 일군들은 함흥연예군인의료기구공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생산정상화에서 제기되어오는 문제들을 해결해주어 이들의 로력투쟁을 적극 고무추동하였다. 평양전자의료기구공장, 개성연예군인의료기구공장을 비롯한 각지 공장들에서도 1월생산계획을 단숨에 수행할 불같은 열의안고 생산적양양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나가고있다. **주령봉**

의과학원 의학생물학연구소 과학자들

의과학원 의학생물학연구소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예방약과 치료약을 적극 개발하기 위한 최첨단들과전을 힘있게 벌이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의학부문 과학자, 기술자들은 당과 혁명앞에 지닌 무거운 책임을 깊이 자각하고 의학연구사업에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디.》**

이곳 연구진단이 맡고 있는 첨단연구과제들의 거의 대부분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언에 따라 연구가 시작되었다. **신장 지수통동무를 비롯한 연구진단은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을 깊이 진해할 불같은 충성심을 안고 몇해전부터 생물소련에 대한 견사를 우리 식으로 새롭게 할것을 결심하고 밤낮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여왔다.**

이들의 고심어린 노력으로 지난해 생물소련에 의한 새로운 검사방법이 연구되었다. **그런 시기 값비싼 설비와 방오에 의해서 진행하던 생물소련에 의한 검사방법과는 달리 우리 식, 우리의 힘으로 완성한 이 방법은 조작이 간단하고 품이 적게 들어 군인민병원에서도 얼마든지 리용할 수 있다.**

지난해 이들이 거둔 자랑찬 성과는 온 연구소에 최첨단들과전의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발전된 일부 나라들에서 아직 연구중이 있는 전기회로복합은 치료약과 새로운 예방약을 대담하게 개발할것을 결심한 실장 박사 하수길동무를 비롯한 연구진단은 올해안에 기어이 시제품을 내놓을 신심에 넘쳐 있다.

이외에도 연구자들은 줄기세포기술을 임상실험에 적극 도입하여 여러가지 난치성질병들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연구를 보다 심화시키고있으며 여러가지 급속재료들을 나노화하여 의약품개발에 리용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있다.

연구소가 내세운 연구과제는 방대한지만 뜻깊은 올해를 최첨단연구성과로 빛내일 이목 과학자들의 결심은 확고하고 열의는 대단하다. 일군들인 박순범, 장해남동무들은 언제나 과학자출세에 들어가 그들의 사상을 발동하고 걸린 문제들을 때때로 풀고주며 최첨단들과전을 힘있게 떠밀어주고있다.

전국의 치료예방기관들에 의약품들을 보장하기 위해 소문없이 많은 일을 해오고있는 이곳 연구소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이룩한 성과에 자못도 자만함이 없이 또다시 새로운 최첨단목표들을 향하여 시작부터 기세좋게 나아가고있다. **본사기자 김옥별**

독자의 편지

작시 때문에 울고웃는 것이 어머니의 행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마터면 그 행복을 잃을 뻔 하였습니디. 지난해 3월 나 아들이 갑자기 아메리카 불어선으로 가기로 하였습니디. 리진로스와 군인민병원에서는 아들의 몸상태를 진찰한 후 부장장물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디. 저는 아들을 업고 서둘러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으로 옮겨왔습니디. 소이외과에 입원한 후 인차 수술을 하

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수술장으로 들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후신이나 생애에 계속 눈물만 흘렸습니디. 한시간, 두시간 흘러가자 수술장문이 열렸습니디. 후에 안 일이지만 이미 종물이 터져 복막염이 겹치고 그 중독으로 수술은 몹시 어렵게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충처럼 개선되지 못하는 아들의 상태를 지켜보며 담당의사 유대호선생님을 비롯한 의료일군들은 정황에 맞는 치료대책들**

1월생산계획을 단숨에

각지 의약품, 의료기구공장들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약공업부문과 의료기구공업부문에서는 생산을 정상화하고 의약품과 의료기구의 가지수를 늘이며 그 질을 더욱 높여야 하겠습니디.》**

각지의 의약품, 의료기구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업무를 결사관철할 불타는 열의안고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닥뜨려 힘차게 전진해나가고있다.

제약공업부문을 맡은 보건성 일군들은 평양제약공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 원료, 자재들과 많은 후방물자들을 가지고나가 공장종업원들과 일도 함께 하면서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정치사업을 기동성있게 진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의 구절구절을 가슴에 새기

고 평양제약공장의 종업원들은 새해벽두부터 생산적양양을 일으키고있다. 평양제약공장을 비롯한 여러 예방약공장에서 당의 예방의학적방정관찰에서 자신들이 맡고있는 업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내부에 비와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늘이기 위한 긴장한 전투를 벌여가고있다.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사업은 자신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높은 자각을 안고 보건성 일군들은 만경대고려약공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 고려약생산에 필요한 많은 물자들을 싣고 달려나가 질 좋고 효능높은 고려약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구체적인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년초부터 더 높은 생산성과를 얻어내기 위해 앞장에서 뛰고 또 뛰는 일군들의 진취적인 사업기풍에 고무된 각지 고려약공장 로동계급이

신념에 바짝 조이고 긴장한 전투를 벌여가고있다. 총공격전의 불길도 높이 강개고려약공장, 강개고려약가공공장, 금야고려약공장에서 열을 남긴 시간엔 월계획의 50%이상 수행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비약의 불바람은 의료기구 부문에서도 세차게 일어나고 있다. 보건성의 해당 일군들은 함흥연예군인의료기구공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생산정상화에서 제기되어오는 문제들을 해결해주어 이들의 로력투쟁을 적극 고무추동하였다. 평양전자의료기구공장, 개성연예군인의료기구공장을 비롯한 각지 공장들에서도 1월생산계획을 단숨에 수행할 불같은 열의안고 생산적양양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나가고있다. **주령봉**

의과학원 의학생물학연구소 과학자들

의과학원 의학생물학연구소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예방약과 치료약을 적극 개발하기 위한 최첨단들과전을 힘있게 벌이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의학부문 과학자, 기술자들은 당과 혁명앞에 지닌 무거운 책임을 깊이 자각하고 의학연구사업에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디.》**

이곳 연구진단이 맡고 있는 첨단연구과제들의 거의 대부분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언에 따라 연구가 시작되었다. **신장 지수통동무를 비롯한 연구진단은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을 깊이 진해할 불같은 충성심을 안고 몇해전부터 생물소련에 대한 견사를 우리 식으로 새롭게 할것을 결심하고 밤낮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여왔다.**

이들의 고심어린 노력으로 지난해 생물소련에 의한 새로운 검사방법이 연구되었다. **그런 시기 값비싼 설비와 방오에 의해서 진행하던 생물소련에 의한 검사방법과는 달리 우리 식, 우리의 힘으로 완성한 이 방법은 조작이 간단하고 품이 적게 들어 군인민병원에서도 얼마든지 리용할 수 있다.**

지난해 이들이 거둔 자랑찬 성과는 온 연구소에 최첨단들과전의 열풍을 더욱

독자의 편지

작시 때문에 울고웃는 것이 어머니의 행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마터면 그 행복을 잃을 뻔 하였습니디. 지난해 3월 나 아들이 갑자기 아메리카 불어선으로 가기로 하였습니디. 리진로스와 군인민병원에서는 아들의 몸상태를 진찰한 후 부장장물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디. 저는 아들을 업고 서둘러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으로 옮겨왔습니디. 소이외과에 입원한 후 인차 수술을 하

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수술장으로 들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후신이나 생애에 계속 눈물만 흘렸습니디. 한시간, 두시간 흘러가자 수술장문이 열렸습니디. 후에 안 일이지만 이미 종물이 터져 복막염이 겹치고 그 중독으로 수술은 몹시 어렵게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충처럼 개선되지 못하는 아들의 상태를 지켜보며 담당의사 유대호선생님을 비롯한 의료일군들은 정황에 맞는 치료대책들**

을 건강하게 세워나갔습니디. 한밤을 꼬박기 새우고도 후신날, 명절날마저 바쳐지는 의료일군들을 대하기가 너무 민망하여 저는 그 마음만으로 도꼬마리 우니 이런 치료를 그만하고도 만류하였습니디. **울먹이는 저에게 파장 리광천 선생님은 환자를 위해 자기를 장로리 바쳐지는 것은 의료일군의 본분이라고, 어떻게 하나 힘을 합쳐 아들을 살려내고 저의 손을 꼭 잡으며 신심을 안겨주는 것이였습니디.**

올해도 꽃을 피울 의료일군들의 불같은 정성으로 수술후 며칠만에 아들은 의식을 차리기 시작했고 마침내 얼굴에는 붉은 미소가 피어났습니디. **의식을 차린 자식이 조용히 《엄마!》하고 부를 때 저의 가슴은 행복으로 찼던 것어 들습니디. 바로 이런 어머니의 행복을 찾아주기 위해 의료일군들이 며칠밤을 지새우며 뜨거운 정을 기울여주었습니디. 정말이지 의료일군들의 뜨거운 정성속에서 우리 아들은 세상에 두번다시 태어났고 저는 어머니의 행복을 되찾았습니디.**

연탄군 수물리 10인민반 백연화

어려모로 좋은 태양열생태온실

면 어려모로 좋다 한다. 우선 보충적인 식량이나 전력 소비가 없이 겨울철에도 작물재배를 계속할 수 있다. 태양열생태온실에서는 메탄가스를 연료로 하여 온실의 온도를 높이는 데 이때 집짐승들의 체온도 온실온도를 높이는 작용을 한다.

자료에 의하면 몸무게가 50kg인 돼지 10마리는 면적이 100㎡인 온실의 온도를 1℃ 높이며 몸무게가 100kg이상인 경우에는 1.5℃ 높인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메탄가스의 발열량은 2만 3000kcal로서 석탄 1kg이나 휘발유 0.7kg의 발열량에 맞먹으며 용적이 100㎡인 메탄가스탕크에서는 한해에 약 1t의 석탄과 맞먹는 메탄가스를 생산할 수 있다 한다.

어느 한 나라에 있는 면적이 480㎡인 태양열생태온실에서는 겨울철대기온도가 평하 25℃인 경우에도 내부온도를

밤에는 8℃, 낮에는 20℃로 유지하여 작물재배의 요구를 만족시켰다고 한다. 좋은 집은 또한 생산성을 높여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태양열생태온실은 작물재배와 집짐승사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므로 그 생산성이 높다. 자료에 의하면 태양열생태온

실에서는 메탄가스발효액을 비료와 먹이첨가제로 리용하여 일반 태양열온실에서보다 남새수출을 20~30% 높이고 돼지 마리당 먹이소비량을 80~100kg 줄일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좋은 온도조건과 충분한 산소보장 조건에 의해서 돼지끼르는 기간을 보통조건에서보다 1~2개월 앞당길 수 있다고 한다. 면적이 370㎡인 태양열생태온실에서는 4000일동안에 9t 500kg의 남새와 30마리의 돼지, 900㎡의 메탄가스를 생산하여 막대한 리득을 얻었다고 한다.

이밖에도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력을 높일 수 있다. 태양열생태온실에서는 위생실과 집짐승우리에서 나오는 배설물을 메탄가스탕크에서 발효시키므로써 각종 병해충과 기생충의 번식을 막고 발효액과 찌꺼기를 리용하여 토양의 유기질함량을 높인다. 자료에 의하면 메탄가스발효찌꺼를 3년동안 토양에 주어 유기

질함량을 0.02~0.15% 높였다고 한다. 태양열생태온실은 메탄가스를 연료로 리용하여 온실온도를 3~5℃ 더 올리면서 남새재배 물로 집짐승의 보충먹이를 보장하는 원칙에서 설계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포전과 집짐승우리의 면적비는 8:1~10:1 정도인다고 한다. 전형적인 태양열생태온실의 규모를 보면 길이 50m, 너비 8m이고 그간의 돼지우리면적은 20㎡, 작물재배면적은 330㎡이며 온실고도는 6m 정도인 판리현방을 쓴다. 돼지우리와 위생실면적에 5~7㎡의 메탄가스탕크가 설치되어 있으며 10~15마리의 돼지를 기른다.

이러한 온실에서는 한해에 300~500㎡의 메탄가스와 10~15㎡의 발효액과 찌꺼기 된 유기질비료를 얻어내는 데 메탄가스는 가열기와 가스등에 공급되면서 온실의 온도를 10~30℃로 보장하는데 쓰이며 1년에 채지는 30마리정도, 남새는 5t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 태양열생태온실운영에서 주의할 점은 공기갈이를 제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높이 평가해주신 위생학자주택지구에 일떠선 4개 호동의 온실들이 바로 고려형순환생태온실이다. **본사기자**

독자의 편지

작시 때문에 울고웃는 것이 어머니의 행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마터면 그 행복을 잃을 뻔 하였습니디. 지난해 3월 나 아들이 갑자기 아메리카 불어선으로 가기로 하였습니디. 리진로스와 군인민병원에서는 아들의 몸상태를 진찰한 후 부장장물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디. 저는 아들을 업고 서둘러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으로 옮겨왔습니디. 소이외과에 입원한 후 인차 수술을 하

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수술장으로 들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후신이나 생애에 계속 눈물만 흘렸습니디. 한시간, 두시간 흘러가자 수술장문이 열렸습니디. 후에 안 일이지만 이미 종물이 터져 복막염이 겹치고 그 중독으로 수술은 몹시 어렵게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충처럼 개선되지 못하는 아들의 상태를 지켜보며 담당의사 유대호선생님을 비롯한 의료일군들은 정황에 맞는 치료대책들**

을 건강하게 세워나갔습니디. 한밤을 꼬박기 새우고도 후신날, 명절날마저 바쳐지는 의료일군들을 대하기가 너무 민망하여 저는 그 마음만으로 도꼬마리 우니 이런 치료를 그만하고도 만류하였습니디. **울먹이는 저에게 파장 리광천 선생님은 환자를 위해 자기를 장로리 바쳐지는 것은 의료일군의 본분이라고, 어떻게 하나 힘을 합쳐 아들을 살려내고 저의 손을 꼭 잡으며 신심을 안겨주는 것이였습니디.**

연탄군 수물리 10인민반 백연화

독자의 편지

작시 때문에 울고웃는 것이 어머니의 행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마터면 그 행복을 잃을 뻔 하였습니디. 지난해 3월 나 아들이 갑자기 아메리카 불어선으로 가기로 하였습니디. 리진로스와 군인민병원에서는 아들의 몸상태를 진찰한 후 부장장물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디. 저는 아들을 업고 서둘러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으로 옮겨왔습니디. 소이외과에 입원한 후 인차 수술을 하

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수술장으로 들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후신이나 생애에 계속 눈물만 흘렸습니디. 한시간, 두시간 흘러가자 수술장문이 열렸습니디. 후에 안 일이지만 이미 종물이 터져 복막염이 겹치고 그 중독으로 수술은 몹시 어렵게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충처럼 개선되지 못하는 아들의 상태를 지켜보며 담당의사 유대호선생님을 비롯한 의료일군들은 정황에 맞는 치료대책들**

을 건강하게 세워나갔습니디. 한밤을 꼬박기 새우고도 후신날, 명절날마저 바쳐지는 의료일군들을 대하기가 너무 민망하여 저는 그 마음만으로 도꼬마리 우니 이런 치료를 그만하고도 만류하였습니디. **울먹이는 저에게 파장 리광천 선생님은 환자를 위해 자기를 장로리 바쳐지는 것은 의료일군의 본분이라고, 어떻게 하나 힘을 합쳐 아들을 살려내고 저의 손을 꼭 잡으며 신심을 안겨주는 것이였습니디.**

연탄군 수물리 10인민반 백연화

독자의 편지

작시 때문에 울고웃는 것이 어머니의 행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마터면 그 행복을 잃을 뻔 하였습니디. 지난해 3월 나 아들이 갑자기 아메리카 불어선으로 가기로 하였습니디. 리진로스와 군인민병원에서는 아들의 몸상태를 진찰한 후 부장장물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디. 저는 아들을 업고 서둘러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으로 옮겨왔습니디. 소이외과에 입원한 후 인차 수술을 하

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수술장으로 들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후신이나 생애에 계속 눈물만 흘렸습니디. 한시간, 두시간 흘러가자 수술장문이 열렸습니디. 후에 안 일이지만 이미 종물이 터져 복막염이 겹치고 그 중독으로 수술은 몹시 어렵게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충처럼 개선되지 못하는 아들의 상태를 지켜보며 담당의사 유대호선생님을 비롯한 의료일군들은 정황에 맞는 치료대책들**

을 건강하게 세워나갔습니디. 한밤을 꼬박기 새우고도 후신날, 명절날마저 바쳐지는 의료일군들을 대하기가 너무 민망하여 저는 그 마음만으로 도꼬마리 우니 이런 치료를 그만하고도 만류하였습니디. **울먹이는 저에게 파장 리광천 선생님은 환자를 위해 자기를 장로리 바쳐지는 것은 의료일군의 본분이라고, 어떻게 하나 힘을 합쳐 아들을 살려내고 저의 손을 꼭 잡으며 신심을 안겨주는 것이였습니디.**

연탄군 수물리 10인민반 백연화



농업근로자의 분분을 안고 새해농사차비를 실속있게 해나가고있다. - 회령시 인제협동농장에서 - 본사기자 찍음

대오의 기수가 되어

항일유격대의 나팔수처럼 살며 투쟁하는 당초급전일군들속에는 구성시와 구장군의 농촌선동원들도 있다. **구성시 남흥협동농장 제2작업반 1분조 선동원 리재옥, 2분조 선동원 리정순동무들은 서로 경쟁을 하며 작업반이 3대혁명명승기작업반의 영예를 계속 빛내어가고자 하는데 언제나 앞장서 달려가고있다.** 이들은 작업반농사를 잘 짓는 데서 선수가 되어 지난해농사를 잘 짓은 그 기수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고도 새해농사차비에서도 작업반원들모두가 한마음한뜻이 되어 겨울생산과 실어내기, 영농자재와 중소농기구를 마련하는 사업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고 오르도록 하고있다. 선동원들이 대오의 기수가 되어 농장원들의 정진력을 총괄시키기 위한 화신선동원활동을 즐기게 벌이고있는것으로 하여 남흥협동농장의 포전들은 새해농사차비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구장군 읍협동농장 온실분조 선동원 변경의동무는 모든 선동원들에게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당원들과 농장원들속에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화신선동원방법을 잘 알리우며 그들이 대중을 당정책관철로 불리워이키는 선도자적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이끌어주고있다.** 그리하여 선동원들모두가 새해에 들어와 농장원들의 심금을 울리는 선동사업을 참신하게 벌려나가기 되었다. **구장군 조산협동농장 제5작업반 2분조 선동원 김옥녀동무는 거름실어내기를 농장적으로 제일먼저 끝내도록 분조원들을 이끌었으며 다른 분조의 농사에도 적극 도와나서게 함으로써 작업반이 서로 돕고 이끄는 고상한 집단주의정신이 차남치게 하고있다.**

대오의 기수가 되어 당원들과 농장원들을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관철에 적극 불리워이키고있는 선동원들의 적극적인 투쟁으로 농장원들에서는 애국충정의 불길, 창조와 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고있다. **본사기자**

독자의 편지

작시 때문에 울고웃는 것이 어머니의 행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마터면 그 행복을 잃을 뻔 하였습니디. 지난해 3월 나 아들이 갑자기 아메리카 불어선으로 가기로 하였습니디. 리진로스와 군인민병원에서는 아들의 몸상태를 진찰한 후 부장장물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디. 저는 아들을 업고 서둘러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으로 옮겨왔습니디. 소이외과에 입원한 후 인차 수술을 하

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수술장으로 들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후신이나 생애에 계속 눈물만 흘렸습니디. 한시간, 두시간 흘러가자 수술장문이 열렸습니디. 후에 안 일이지만 이미 종물이 터져 복막염이 겹치고 그 중독으로 수술은 몹시 어렵게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충처럼 개선되지 못하는 아들의 상태를 지켜보며 담당의사 유대호선생님을 비롯한 의료일군들은 정황에 맞는 치료대책들**

을 건강하게 세워나갔습니디. 한밤을 꼬박기 새우고도 후신날, 명절날마저 바쳐지는 의료일군들을 대하기가 너무 민망하여 저는 그 마음만으로 도꼬마리 우니 이런 치료를 그만하고도 만류하였습니디. **울먹이는 저에게 파장 리광천 선생님은 환자를 위해 자기를 장로리 바쳐지는 것은 의료일군의 본분이라고, 어떻게 하나 힘을 합쳐 아들을 살려내고 저의 손을 꼭 잡으며 신심을 안겨주는 것이였습니디.**

연탄군 수물리 10인민반 백연화

독자의 편지

작시 때문에 울고웃는 것이 어머니의 행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마터면 그 행복을 잃을 뻔 하였습니디. 지난해 3월 나 아들이 갑자기 아메리카 불어선으로 가기로 하였습니디. 리진로스와 군인민병원에서는 아들의 몸상태를 진찰한 후 부장장물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디. 저는 아들을 업고 서둘러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으로 옮겨왔습니디. 소이외과에 입원한 후 인차 수술을 하

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수술장으로 들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후신이나 생애에 계속 눈물만 흘렸습니디. 한시간, 두시간 흘러가자 수술장문이 열렸습니디. 후에 안 일이지만 이미 종물이 터져 복막염이 겹치고 그 중독으로 수술은 몹시 어렵게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충처럼 개선되지 못하는 아들의 상태를 지켜보며 담당의사 유대호선생님을 비롯한 의료일군들은 정황에 맞는 치료대책들**

을 건강하게 세워나갔습니디. 한밤을 꼬박기 새우고도 후신날, 명절날마저 바쳐지는 의료일군들을 대하기가 너무 민망하여 저는 그 마음만으로 도꼬마리 우니 이런 치료를 그만하고도 만류하였습니디. **울먹이는 저에게 파장 리광천 선생님은 환자를 위해 자기를 장로리 바쳐지는 것은 의료일군의 본분이라고, 어떻게 하나 힘을 합쳐 아들을 살려내고 저의 손을 꼭 잡으며 신심을 안겨주는 것이였습니디.**

연탄군 수물리 10인민반 백연화

독자의 편지

작시 때문에 울고웃는 것이 어머니의 행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마터면 그 행복을 잃을 뻔 하였습니디. 지난해 3월 나 아들이 갑자기 아메리카 불어선으로 가기로 하였습니디.

